

종합·해설



이명박 당선인이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외신기자회견에서 연설하고 있다. 오른쪽은 임연숙 서울외신기자클럽회장, 왼쪽은 특역 김일범씨. /연합뉴스

“北 비핵화 인내심 갖고 대처”

■ 이명박 당선인 외신기자회견

“통일부, 외교부와 합친 것... 통일 염두한 개편”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7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이제 남북 간에 열린 마음으로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고 이것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회견에서 “(과거에 내가) 할 말은 하겠다고 말한 것은 보다 솔직히 대화를 하겠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북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은 무엇보다 핵문제와 북한 주민들의 삶의 문제”라면서 “아울러 이산가족 상봉, 국군포로, 남북어민 문제 등도 협의해서 완만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 지연과 관련, 이 당선인은 “현재 (북한) 비핵화가 지연되고 있지만 인내심을 갖고 신중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6자회담 참가국과의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엇보다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과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조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북한과의 대화 및 교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핵을 포기하는 것이 정권이나 주민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꾸준히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통일부 폐지와 관련, “통일부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외교부와 합친 것이며, 남북 간 문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다는 생각”이라며 “차기정부에서 확대될 남북 간 교류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면서 통일도 염두에 두고 정부조직을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과거 남북관계는 남북이 각각 특정 부처에서 담당했으나 이제는 남북관계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통일에 대비해야 하는데 한 부처가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컸다”며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고 경제협력력이 적극적으로 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부서가 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당선인은 그러면서 다음달 25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북한 측 사절단 초청 가능성에 대해 “북한으로부터 공식 연락은 없다. 그러나 북한에서 경축사절단으로 온다면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 이 당선인은 “일본이 형식적으로 사과해온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한국인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다”고 지적한 뒤 “나 자신은 성숙한 한일관계를 위해 ‘사과하라’ ‘반성하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고, 일본도 굳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의 성숙한 외교를 할 것”이라며 “한일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 당선인은 이어 “이명박 정부는 세계와 호흡하는 진정한 ‘글로벌 코리아’를 지향, ‘보다 안전한 한반도, 보다 풍요로운 아시아, 보다 정의로운 세계질서’를 만드는 데 우리의 힘을 다하겠다”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조기 비준, 한·유럽연합(EU) FTA 협상 지속 확대, 여타 국가들과의 FTA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명박 정부도 인물난?

각료 후보군 약식검증서 ‘줄타락’...야당 10년 인재풀 ‘빈약’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측이 인물난에 빠졌다. 야당 생활 10년을 하면서 인재풀이 ‘빈약’해진 데다 그나마 쓸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해 후보로 추천하면 부동산투기 의혹에다 음주운전 ‘진과’ 등 이래저래 걸리는 게 많아 후보군에서 조기 탈락하기 일췌기 때문이다. 총리와 각료 후보군 가릴 것이 없이 똑같은 실정이다. 새 정부 조각팀이 최근 총리와 각료 후보군 200여 명을 대상으로 1차 약식검증을 실시한 결과, 절반 가량이 낙점점을 받아 ‘아웃’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밀검증에 앞서 실시하는 약식검증은

본인의 재산과 병역, 납세, 학력 등에 관한 기초검증을 하는 것으로, 후보군의 절반이 1차 관문조차 통과하지 못한 셈이다. 인신위 관계자는 17일 “약식검증에서 많이 걸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후보군 가운데 절반이 탈락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총리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됐던 A씨는 부동산 과다보유 등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후보군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재과학부 장관 후보군에 포함됐던 B씨는 과거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문제가 돼 탈락했고, 농수산식품부 장관 물망에 올

랐던 C씨는 10여 년 전의 비리 연루 의혹 때문에 아웃됐다는 후문이다.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에는 기업인 출신 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으나 상당수는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법 위반 사례 때문에 후보군에서 조기에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광복위에게 각료 후보군에 올랐던 D씨는 여자문제, E씨는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 F씨는 위장전입 의혹 등의 결격 사유로 인해 검증과정에서 각각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선인 측은 1차 검증을 통과한 인사 100여 명을 대상으로 조만간 정밀검증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조직 개편 이어 각료 하마평 ‘술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공식 발표함에 따라 누가 새 정부 초대 각료군에 합류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25일께나 조각명단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이 당선인측 공식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4~5배수 정도까지 압축해 검증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우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탄생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강만수 인신위 경제1분과 간사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총선 출마실과 함께 비서실장 하마평에 올라 있는 윤진식 전 산자부 장관과 정덕구 전 산자부 장관, 사공일 국가경쟁력특위위원장, 윤중현 전 금융위원장, 진동수 전 재정부 차관, 최경환·이한구·이종구 의원 등도 물망에 올라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의 일부 기능이 합쳐지는 인재과학부 장관에는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이경숙 인신위원(속대 총장)과 손병두 서강대 총장,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 오세정 서울대 자연대학장 등이 후보군에 올라 있다.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및 과학기술부 일부 기능이 통합되는 지식경제부 장관에는 윤진식 전 장관과 함께 산자부 무역투자실장을 지낸 박봉규 대구시 정부부시장, 최홍건 전 중소기업특위위원장, 국회 산자위원장인 이윤성 의원 등이 거론된다. 외교부와 통일부를 합한 외교통일부 장관에는 유명한 주일대사와 이태식 주미대사, 장기호 전 이라크 대사 등이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이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유종하 전 외무장관과 현인택 고려대 교수, 권중락 전 아일랜드 대사 등도 거론된다. 법무부 장관에는 이종찬 전 서울고검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의 일부 기능이 합쳐지는 인재과학부 장관에는

회) 등이 우선 거론되고, 김상희 전 법무차관(사시 16회)과 인신위원인 정동기 전 대검처장(사시 18회) 등도 오르내린다. 행정자치부의 개칭인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이만희 전 환경차관과 권영선 전 한국소방감경공사 사장, 원세훈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 김완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권오중 중앙인사위원장, 이성렬 대한지적공사 사장 등이 거론된다. 농수산식품부 장관에는 당선인의 농업 부문 공약을 총괄한 윤석원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와 이상우 전 농림부 기획관리실장, 농림부차관 출신 서규용 한국농어민신문 사장이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는 분석이다.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 해운 부분의 통합조직인 국토해양부 장관에는 인신위원인 최재덕 전 건교부 차관과 광승준 고려대 교수, 김세호 전 건교부 차관, 장석호 인신위 한반도대운회TF 팀장, 강현욱 전 전북도지사 등이 거론된다. /연합뉴스

2009 학년도 공립학교 (유치원·초등·중등·보건) 교사임용시험? 관점없는 공부는 낭비일 뿐입니다! 2009학년도 임용시험 3단계 전형으로 변경됩니다. 1차 선택형 필기시험 영향력 축소, 2,3차 시험 배점 확대 및 적격자 선별기능 강화. http://www.naeyoung.com

산행안내 1월 19일(토) ▲야산(제주도 한라산 1월19일(토) 07시 20분) ▲광주도야산(제주도 한라산 1월19일(토) 07시30분) ▲광주도야산(제주도 한라산 1월19일(토) 07시30분) 1월 20일(일) ▲광주도야산(제주도 한라산 1월20일(일) 07시30분) 1월 21일(월) ▲광주도야산(제주도 한라산 1월21일(월) 07시30분) 1월 22일(화) ▲광주도야산(제주도 한라산 1월22일(화) 07시30분) 1월 23일(수) ▲광주도야산(제주도 한라산 1월23일(수) 07시30분) 1월 24일(목) ▲광주도야산(제주도 한라산 1월24일(목) 07시30분)

광고접수안내 광주일보에 광고를 하고 싶은가요? 광고료는 언제 은행계좌에 입금해주시면 신속히 게재해 드립니다. ☎ 062-227-9600, 220-0524, 0525

채권신고공고 본 회사는 2008년 1월 15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 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08년 2월 14일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월 18일 행복만들기전철팀 주식회사

합격을 전국 1위 = 오전반 야간반 공인중개사/주박관리사 개강 1월 7일 현대적 학습시설 과학적 평가 시스템. 전남고시학원 236-2467

금당부동산 ☎ 223-7400 ☎ 016-632-5659 위치:충무로 57리 코너 2층 사찰(절) 및 사찰부지 남구 칠산동 문화방송국역. 광주시내 전체를 조망하며, 무등산이 정면으로 보이고 주변은 APT 6천세대 이상을 재개발하는 최상의 요지. 대지 501평 공사비 5억5500만원 매도액 조정가능